



외국선사동향

● ... **China Shipping**의 부회장 Huang Ju는 앞으로 컨테이너 부문의 운영을 주력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국영기업인 동사는 CSCL의 모회사이며, 벌크 부문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이다. 동사는 현재 117척의 컨테이너선을 운영, 25만 5,000TEU의 적재능력을 갖고 있으며, 초대형선을 대거 신조발주해 놓고 있다. 2006년과 2007년 사이에 9,200TEU급 8척을 인도받을 예정이다.

● ... **Evergreen Group** 張榮發 총재는 지난해 12월23일 그룹경영을 금년부터 자식들에게 물려준다고 발표했다. 현재 Evergreen Group 부총재인 3남 張國政이 Evergreen Marine Corp의 이사장으로, 4남인 張國偉 Eva Air 주석부총경리는 Eva Air 총경리로 취임하게 된다.

● ... **Maersk**는 최근 9,000TEU급 컨테이너선 4척 신조발주 조선소를 한국의 삼성중공업으로 결정했다. 신조발주된 선대는 2007년-2008년에 인도예정으로, 척당 1억2,000만달러에 발주된 것으로 알려졌다.

● ... **K-Line**은 2004년 12월24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2005년 4월1일부로 마에가와 히로유키 전무를 사장으로 승진선임키로 결정했다. 현재 회장인 신타니 이사오는 고문으로 위촉되며, 사키나가 야스히데 사장은 회장으로 취임한다. 마에가와 신임 사장은 1947년 8월 효고현 태생으로 1971년 3월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후 K-

Line에 입사하여 1997년 7월 경영기획부 기획그룹 부장, 1999년 6월 연결경영추진실장, 2000년 상무에 이어 2002년 6월 전무로 승진한 바 있다.

● ... **NYK**는 아시아/멕시코, 남미서안항로에서 1995년이래 계속해 온 CSAV와의 컨소시엄인 Asia Andes Express를 해제하고 2005년 1월 하순부터 Asia Latin America Service로 명명된 단독 서비스를 개시한다. 중미 및 하와이항 New Margarita Express Service는 하와이, 멕시코, 중미에 기항지를 집약하여 신 서비스 체제로 이행한다. ALEX는 기존의 2,200TEU급 4척에 1,600TEU급 6척을 더하여 총 10척을 투입하되, 70일 Round이다.

● ... **新海豐航運有限公司(SITC)**는 2005년 1월부터 홍콩-베트남-홍콩-대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시한다. RCL의 선복을 이용하여 Hong Kong-Hai Phong-Hong Kong-Keelung-Taichung-Hong Kong에 기항하게 된다. 2005년 1월7일 홍콩을 출항하는 'Ratha Bhum'을 시작으로 주간서비스가 시작된다.

● ... **Zim Integrated Shipping Services**는 2005년 1월 China Shipping과 함께 극동-동지중해 공동직항서비스를 전개한다고 발표했다. 'Asia-Black Sea Express(ABX)'로 명명된 신 서비스는 2,500TEU급 컨테이너선 8척을 투입하여 격주서비스를 실시하다 2/4분기부터는 주간 서비스로 개편될 예정이다.